



2023년 10월 1일(제1160호) 연중 제26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빨간 가방 쌓이두기”

우리들 모두가 알만한 어떤 분이 있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좀 다들었습니다. 그분이 여행을 하는 중이었는데요. 근데 묵었던 숙소에 몸이 아픈 주인집 딸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딸아이는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빨간 가방이 글썄 좋아 보였는지 달라고 자꾸 졸라댔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도 여행 중이고 짐도 있고 사정이 있으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때에 그 숙소에 가보니, 안타깝게도 이미 그 아픈 아이는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고 합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그 아이가 묻혀있는 곳에 찾아가 이후 비석을 세우며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사랑을 미루지 마라.”

사랑을 미루지 마라.... 사랑을 미루지 마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들의 삶을 올바르게 이끄는 아주 단순한 비결 중 하나가 바로 미루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참 많은 것을 미뤄두며 살기에 저 이야기가 눈에 밟혔고, 복음에서도 그저 말로만 아버지를 따른다고 했던 첫째 아들이 괜히 눈에 더 띄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다

음에, 나중에, 언젠가’라는 말로 미뤄두곤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기도할 때도 이런저런 것들을 하겠다 당당하게 수표에 사인하고 찢어 드렸죠. 그렇게 주님께 공수표를 몇 장이나 드렸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는 단 한 번이라도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루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겠습니다.” 이런 기도 말고, “주님, 사랑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봉헌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 <빨간 가방>을 쌓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후회로 점철될 그 <빨간 가방>들을 쌓아놓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표현할 수 있을 때 표현하며,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사람이 되길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마태 21,28)



윤기훈(미키빌) 신부  
백두산(육군 제21보병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에제 18,25-28

회 답 송

◎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제 2 독 시

필리 2,1-11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복 음

마태 21,28-32

영 성 제 송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 신교의 열매 세례성사를 위한 미중를 #7

순례하는 교회는 그 본선상 선교하는 교회다. 교회는 성부의 계획에 따라 성자의 파견과 성령의 파견에 그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계획은 ‘원천적 사랑’ 곧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흘러 나온다. 성부께서는 ‘시작이 없으신 시작’ 이시므로 그분에게서 성자께서 나시고 그분에게서 성령께서 성자를 통하여 나오신다.

주님께서는 당신 교회를 구원의 성사로서 창립하셨으며, 당신께서 성부에게서 파견되신 것처럼 사도들을 온 세상에 파견하시며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마태 28,19~20) 따라서 교회의 의무는 그리스도의 신앙과 구원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는 주교단이 사도들에게서 물려받은 명시적인 명령에 따른 의무이다. 주교단은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회의 최고 목자와 하나 되어 신부들의 도움을 받아 이 명령을 수행한다. 또한 그 의무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지체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력에 따른 것이다.

교회는 생활의 모범, 설교, 성사와 또 은총의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신앙과 자유와 평화로 모든 사람을 이끌며,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에 온전히 참여하는 자유롭고 탄탄한 길이 그들에게 열리는 것이다. 이러한 사명은 계속되며 또 역사의 흐름을 통하여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수행한다.

출처: 『제2차 비티칸 공의회 신교교령』,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5항 발췌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 <span>교</span><span>구</span><span>소</span><span>식</span> </div>	<b>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6주일: 동해(해군) 이현신 신부</b>
<p>◆ <b>제56회 군인 주일</b>                  때: 10월 7일(토) ~ 8일(주일)</p> <p>◆ <b>교구장 동정</b>                  - 제56회 군인 주일 미사                  때·곳: 10월 8일(주일) 11:00, 역삼동 성당</p>	<p>◆ <b>‘군중의 시간’ 안내</b>                  때: 주일 오전 8시 ~ 9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홈페이지와 평화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p>

“신교의 열매, 세례성사!” -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마태 28,19)